

홈 > 뉴스 > 커버스토리

삼성의 승부수 “첨단산업 정복하라”

전기·전자·엔지니어링·화학·자동차 주력...위험 많으나 수익성 높아

[198호] 1993년 08월 12일 (목)

김방희 기자

삼성그룹은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정상을 다투어왔다. 60년대 10대 기업집단 가운데 8개가 오늘날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다(10위권 안에 든 다른 한 그룹은 럭키금성그룹이다). 무엇이 삼성을 ‘영원한 정상’으로 만들어왔을까.

삼성그룹은 늘 대기업집단의 변신을 주도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77년과 83년 첨단산업인 항공산업과 반도체산업에 뛰어든 일이다. 특히 반도체산업에 뛰어든 당시에는 너무 위험한 투자라는 비판이 드셨다. 선대회장의 경영자적 직관이 정확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명확해지고 있다. 반도체산업이 삼성그룹을 국내외에서 일류로 통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최근 여러 강연에서 ‘1만명도 안되는 반도체 집단이 5천억, 6천억씩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극구 칭찬했다. 또 “삼성그룹에서 16메가디램 반도체가 유일하게 세계 정상이며, 한국 기업 역사상 세계 정상은 이것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임원은 이회장의 개혁 조처를 선대 회장의 업적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80년대 초반 선대 회장의 도박이 90년대의 삼성을 있게 했듯, 21세기 초반에도 정상으로 남으려면 지금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다. 회장직을 승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은 5년간 그룹 전체 매출액을 2.5배 성장시켰지만, 그런 양적 변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긴다(도표 참조). 90년대 들어서면서 그가 ‘21세기형 사업구조’를 역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전략은 그룹의 사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 구상에 따라 전기·전자 산업, 엔지니어링사업, 화학산업을 주력 업종으로 하고, 금융서비스산업을 지원 업종으로 삼고 있다. 두 번에 걸친 계열사 분리 작업을 통해 식품·섬유·제지 산업에서 점차 손을 떼는 것도 사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삼성은 성장 산업인 승용차시장 진입에 사운을 걸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21세기에 세계 10대 기업, 5대 반도체 생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은 대단히 공격적인 그룹”

이 전략은 80년대의 모험만큼이나 위험하다. 대개의 첨단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수급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반도체산업이 대표적인 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반도체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21세기에 이르면 기껏해야 전세계적으로 5개 기업 정도가 살아남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정통한 일본 나고야(名古屋) 상과대학의 야나기마치 이사오(柳町功) 교수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가 생존자 대열에 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전망했다. 조선·자동차·항공·화학 산업과 같은 삼성그룹의 다른 주력 업종도 많은 투자에 비해 열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의 모험은 무모한가. 문제는 단기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오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점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각 업종에서 대규모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났다.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주식을 매각해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자신감의 원천이다. 삼성생명보험과 안국화재보험처럼 헤아리기 어려운 자신을 가진 계열

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베어링증권 서울지점 李根模 조사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산업에 맞는 기업 체질을 가졌다는 점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한다. “위험한 산업에선 용감한 업체가 살아남는다. 삼성은 대단히 공격적인 그룹이다.” 위험한 첨단산업일수록 보상도 큰 법이다.

©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